

## 돌아온 친문계... 뭉치는 민주당

공천갈등 수습 '단일대오'  
오늘 통합선대위 출범  
지지층 확대 본격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롯된 계파 간 '공천 갈등'을 수습하고 단일대오 형성을 통한 지지율 반전에 본격 나선다.

총선을 30일 앞둔 11일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천 과정에 갈등을 빚었던 일부 친문계 핵심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백의종군'하고 당에 합류하면서 당내 분위기를 쇄신하는 '전환점'을 맞았기 때문이다.

경선 과정에 컷오프(공천 배제)돼 '공천 갈등'의 기폭제가 됐던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당내 통합을 당부하고 나섰고, 공천 내홍 과정에서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고민정 의원이 이날 최고위에 복귀하면서 당내 갈등은 빠르게 수습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 전 실장과 고 최고위원 등의 '복귀'를 계기로 지지율 반전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보고 선대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지지율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민주당이다. 모두가 아픔을 뒤로 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당내 통합을 당부했다. 그는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무너진다"면서 "이제는 친명(친이재명)도 비명도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더 이상 분열은 공멸이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온 국민의 촛불로 쏘아 올린 '나리다운 나라' 문제의 민주당을 위해 백의종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 답글을 통해 "당의 결정을 수용해 준 임 실장님께 감사하다"며 "임 실장님 말씀처럼 정권 심판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임 실장님 표현대로, 우리는 민주당"이라며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 승리를 우리 민주당이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날 친문계인 고 최고위원이 공천 내홍 속 당직 사의를 밝힌 지 13일 만에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단결을 강조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도 계파 간 통합을 주문하며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고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일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같은 목표를 향해 손잡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의 당내 계파 간 갈등이 임 전 실장의 백의종군과 고 최고위원, 김 전 총리 등의 합류로 인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면서 "이제는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대오 형성을 통해 지지층 확대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총리, 선대위장 합류



"우리는 다 민주당  
친명·친문 버리고  
윤정권 폭주 막아야"

임종석 전 실장, 백의종군 선언



"더 이상 분열은 공멸  
총선 승리 위해  
이대표 중심 단결을"

고민정 최고위원, 최고위 복귀



"윤정권 막으려면  
생각이 달라도  
국민 위해 연대해야"

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최고위원 복귀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라며 "걸어온 길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거대한 '윤석열'이라는 권력 앞에 연대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이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2일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등 '3톱' 체제의 상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애초 김 전 총리는 당내 '공천 파동'에 쓴소리를 내며 선대위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에 합류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국무총리직을 마치면서 정치인과 공직자로서의 여정을 멈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다시 당에 돌아온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심판하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당내)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선거가 눈앞에 왔다. 모든 것을 떨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의 당내 계파 간 갈등이 임 전 실장의 백의종군과 고 최고위원, 김 전 총리 등의 합류로 인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면서 "이제는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대오 형성을 통해 지지층 확대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투표, 민주주의 위한 큰 걸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한달여 앞두고 11일 오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에서 투표용지를 돌리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비트코인, 원화마켓서 장중 1억원 돌파... 사상 최고가

업비트 기준 1억30만 원  
글로벌 마켓서도 7만1000달러

비트코인 가격이 11일 국내거래소에서 사상 처음 1억원을 돌파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이날 오후 7시20분 1비트코인 가격이 1억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오후 4시30분께 1억원을 사상 처음 터지던 뒤 추가 상승을 타진하는 흐름이다. 장중 최고가는 1억30만 원이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8300만 원 선을 넘어 서면서 지난 2021년 11월 9일(8270만 원)의 전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9000만 원대에서 거래됐다.

빗썸에서도 이날 9979만9000원까지 올라 1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글로벌 마켓에서도 사상 최고가가 경신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5시15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만13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5월 2021년 11월 10일의 전고점(6만8789달러)을 돌파한 데 이어 8일 7만 달러 선을 넘어섰다.

원화마켓 시세가 글로벌 마켓보다는 7%가량 높은 셈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거래소에서 올해 초 5700만 원대에 거래되다가, 두 달 새 75% 이상 급등했다.

최근의 상승세는 현물 ETF 승인을 계기로 대

규모 기관 자금이 유입된 덕분에 분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총자산 규모가 최근 127억 달러(약 16조7000억 원)에 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 1월 출시된 현물 ETF 10건에 지난달 말까지 70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담양한과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더 늦어지나 ▶6면  
최원준 출런...KIA, 한화에 3-0 승리 ▶18면  
남도유람 - 담양 로컬브랜드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0,000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국내 수입차 체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0,000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 (도천동)

Mercedes-Benz Certified